

성인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애착이 이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안 지 인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애착이 이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성교제 중인 20세 이상의 연인 69쌍(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연인 62쌍(12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애착척도,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미혼남녀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이성관계만족도 척도,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설문지(Consensual Unwanted Sex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관계만족도와 부적의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여성의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에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 여성의 애착불안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통해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자신의 관계만족도에 유의미한 자기효과를 나타냈으나 상대방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성인 애착, 애착회피, 애착불안, 이성관계만족,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델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 : 고영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안암 5가

Tel : 02-3290-2060, E-mail : elip@korea.ac.kr

개인은 사회와 타인의 압력과 강요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스스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성적 행동을 결정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에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0). 우리 사회에서도 이성교제의 증가, 성가치관의 변화, 결혼 연령의 지연 등과 더불어 성에 대한 개방성이 증진됨으로써 개인의 성적 표현과 행동은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점차 성적 자기결정권, 즉 성적 자율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적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사회 문화적인 통념상 여성이 성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수동적이고 무력한 위치에 있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성행동에 강제성이 개입되었는지에 따라 강간과 합의된 성관계로 나누는 이분법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이러한 접근은 성행동의 강제성 문제를 흑백논리로 따지기 보다는 차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대치되었다(Peterson & Muehlenhard, 2007). 예를 들어 성행동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명목상 저항(token resistance)과 본인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하는 행동 등이 차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또는 응중)이란 본인이 원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파트너의 성적 요구에 순응하여 자발적으로 성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Impett & Peplau, 2003; O'Sullivan & Allgeier, 1998; Walker, 1997).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해 응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은 강간으로 보기도 어렵

고 합의된 성관계로도 보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인 성행동(Walker, 1997)에 해당된다. Gavey(2013)는 이러한 성행동을 '매력적이지 않은 성관계(unsexy sex)'라고 명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응낙 행동은 성적 자율성이 결여된 행동으로서 한 개인의 신체와 심리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한 여대생들은 성 경험 후 죄책감, 자신의 가치가 하락하고 훼손당한 것 같다는 느낌, 자신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느낌,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존감의 손상과 같은 정서적인 불편감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mpett, & Peplau, 2003). 또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지속적으로 응할 경우, 자신의 신체와 성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어 위험한 성적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응낙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약물과 알코올 섭취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Sullivan, Hoffman, Harrison, & Dolezal, 2006). 특히 청소년기에 응낙 경험이 있는 경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ier, Rosenzweig, & Whipple, 1991; Erickson & Rapkin, 1991).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지속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후 성폭행에 노출 당하거나 공격적인 남성의 표적이 되어 성적피해자가 될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Impett & Peplau, 2003; Livingston, Testa, & VanZile-Tamsen, 2007).

O'Sullivan과 Allgeier(1998)의 연구에서는 성경험이 있는 여성 대학생의 55%, 남성 대학생의 35%가, Impett와 Pepau(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65%와 남성의 40%가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20대 여성 603명 364명(60.4%), 남성의 288명 중 78명(27.1%)이 상대

가 나에게 스킨십을 할 때 거절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민우회, 2012). 또 유외숙과 박경(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1601명 중 800명(50%)이 현재나 과거의 파트너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여성이 434명(54%), 남성이 366명(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 모두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하는 것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또는 파트너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Laumann, Michael, & Gagnon, 1994; Wyatt & Riederle, 1994). 일반적으로 신체적 압력이나 언어적 협박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이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한 경우로서 데이트 관계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게 된다(Koss, 1985). 이와 같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주로 이성교제 관계에서 일어나며 이런 점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이성교제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성교제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관계 및 대인관계의 한 유형으로서(Bukowski, Sippola, & Newcomb, 2000) 초기 성인기의 이성교제는 발달과업 중 친밀감 형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Erikson, 1959). 이런 점에서 애착이론은 사람들이 교제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행동을 하며 친밀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유용한 조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애착은 유아가 주양육자에 대해 경험하는 정서적 유대감이며(Bowlby,

1973, 1982) 생애 초기에 가장 먼저 발달되는 사회적·행동 체계로서(Cassidy, 1999) 이후의 대인 관계에 대한 기대, 감정, 그리고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패턴을 생성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Fraley & Shaver, 2000; Shaver & Mikulincer, 2002). 특히 이성교제 관계에서는 유아와 양육자 관계에서 나타났던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역동이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Hazan & Shaver, 1987). 일반적으로 성인애착은 불안과 회피, 2개의 차원으로 개념화된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회피 수준이 높은 성인은 이성관계에서도 파트너와 감정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파트너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Main, 1990; Mikulincer & Shaver, 2003). 특히 이들은 파트너가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 상대의 행동을 무시하고 또 그러한 행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보인다(Florian, Mikulincer, & Hirschberger, 2002). 따라서 회피 수준이 높은 성인은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불안 수준이 높은 성인은 타인과의 친밀감을 강하게 열망하고 분리와 거절에 대한 공포를 보이는데, 이들은 파트너와의 장기적인 헌신과 친밀감과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의 파트너는 자신에게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또 파트너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과소평가하고 파트너가 관계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분을 과대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버려질 것이라 예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Murray, Holmes, & Griffin, 2000). 따라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파트너가 자신을 떠나거나 부재할 것에 대한 걱정으로 파트너와의 접근성을 확실히 해 놓으려는 인지 행동 체계를 과활성화시키며, 이는 오히려 상대 파트너와의 관계갈등을 가속화시키게 된다(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Mikulincer & Shaver, 2003).

Shaver, Hazan과 Bradshaw(1988)는 사랑이 3가지의 개별적인 행동체계인 애착, 돌봄, 성행동을 포함하며 각각의 행동체계는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 한 개인의 성행동은 애착의 영향을 받으며 성행동도 파트너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애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azan & Zeifman, 1994).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성인은 파트너와의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감정이 결여된 단기간의 우발적 성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ennan & Shaver, 1995; Kalichman, Sarwer, Johnson, Ali, Early, & Tuten, 1994; Tracy, Shaver, Albino, & Cooper, 2003). 또 이들은 상대 파트너를 통제하고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동료들 사이의 선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성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성관계 중에도 즐거움을 적게 보고하였다(Davis, Shaver, & Vernon, 2004; Schachner & Shaver, 2004).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성인은 파트너로부터의 유기를 피하기 위해 정서적 친밀감을 증가시키고 파트너로부터 관심과 승인 그리고 확신을 얻기 위해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Shaver, & Vernon, 2004; Schachner & Shaver, 2004; Tracy, Shaver, Albino, & Cooper, 2003). 또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파트너와의 성적 경험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상대방의 정서적

관여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성행동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rnbaum, Reis, Mikulincer, Gillath, & Orpaz, 2006). 이러한 방식으로 성행동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감정적 욕구와 성적 욕구를 혼동하게 되며 애착불안이 높은 여성은 안전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성행동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Feeney, Kelly, Gallois, Peterson, & Terry, 1999; Impett & Peplau, 2002).

이처럼 성행동은 애착과 상호작용하며 특히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하는 것은 성적욕구 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관계적인 측면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이 관계 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성 관계에서의 만족감은 주관적인 기대의 충족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홍대식, 1998), 나아가 결혼 후의 만족도, 적응 및 행복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Cate, Levin, & Richmond, 2002; Markman, 1981).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적 만족감이 관계의 질 및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Aron과 Aron(1986)는 이성관계에서의 성행동이 친밀감과 자기 노출 수준을 증가시켜 관계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성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성관계만족도와 성적개방성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전윤경, 이기학, 2005).

그러나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관계만족도 간 상관은 비교적 일관적이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Impett와 Peplau(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친밀감 증진을 위해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할 경우 연인 관계가 증진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O'Sullivan과 Allgeier(1998)의 연구에서는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경험이 있는 여성 중 88%가 파트너의 만족감 증진, 파트너와의 갈등 완화, 자신의 신체적 성적 만족 촉진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경험이 있는 여성 중 65%는 정서적 불편감, 신체적 불편감, 관계 내 갈등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Katz와 Tirone(2008)의 연구에서는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한 여성이 응낙하지 않은 여성보다 관계만족도가 낮았다. 하지만 관계 내 헌신 정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성이 친밀감 증진과 같은 접근적 동기를 가지고 응낙행동을 했어도 관계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 Impett와 Peplau의 연구(2003)에서는 여대생 125명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행동과 애착, 성행동 빈도 및 헌신정도를 조사했고, Bay-Cheng과 Eliseo-Arras의 연구(2008)에서는 여대생 22명을 대상으로 응낙행동과 성역할 및 성적 기준을 조사했으며 O'Sullivan과 Allgeier의 연구(1998)에서는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한 동기에 대해 연구했지만 이 모든 연구들에서는 연인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주로 이성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연인 관계 내에서 개인의 행동은 독립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성교제관계에서는 한 개인의 감정과 인지, 그리고 행동이 파트너의 감정, 인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상호성의 특징을 갖는다(Kelly & Thibaut,

1978),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자료는 한 개인의 점수가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또 두 점수가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Cook & Kenny, 2005). 따라서 연인의 자료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의존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Kenny, 1996)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APIM 모델에서는 자료의 예측적 관계를 자기 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로 나누어 검증하게 된다. 자기효과는 개인의 과거 행동이 자신의 현재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측정하며, 상대방효과는 한 개인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이 모델은 제 3의 변인과 상대방의 영향을 통제하여 연구자가 가정한 독립변인에 대한 순수한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인간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PIM모델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이 자신과 상대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중인 연인을 대상으로 애착과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그리고 관계만족도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애착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20세 이상

의 연인 69쌍(138명)이 참여하였다. 서울 소재 대학교와 대학원 커뮤니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연구 홍보물을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연인들을 모집하였다. 참여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전 과정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연인 138명(69쌍) 중 124명(62쌍)이 설문을 완료하였으며 분석에는 총 124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참가자는 남성이 62명, 여성 62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남성이 24.61세($SD=3.03$), 여성이 23.32세($SD=2.82$) 이었다. 현재 이성과의 교제 기간은 1개월 미만인 8명(6.5%), 1~6개월이 25명(20.2%), 6~12개월이 19명(15.3%), 1~2년이 30명(24.2%), 2~3년이 23명(18.5%), 3년 이상이 19명(15.3%)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중 95명(72.6%)이 학생, 19명(15.3%)이 회사원 및 직장인, 7명(5.6%)이 취업준비 중이었으며, 8명(6.4%)이 기타로 응답하였다.

성관련 행동 경험은 전원이 포옹과 키스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애무 경험자는 116명(93.5%), 구강성교 경험자는 108명(87.1%), 그리고 삽입성교 경험자는 102명(8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55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1~3회(53명, 42.7%), 연 6회 이하(11명, 8.9%), 하지 않음(5명,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이성관계애착척도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과 Shaver(1998)가 개발한 친밀관계 경험 검사(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Scales; ECRS)를 김광은과 이위갑(2005)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불안과 회피 요인을 바탕으로 연속적인 차원에서 성인애착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불안 요인 18문항 그리고 회피 요인 18문항을 더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성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측면을 7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매우 그렇다)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불안 하위척도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로 인한 집착과 몰입을 측정하며 회피 하위척도는 상대방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회피요인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는 전체 .87, 남성 .83, 여성 .90이며 애착불안 문항들의 내적일치도(Chronbach's α)는 전체 .88, 남자 .88, 여자 .87였다.

이성관계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nyder(1979)가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권정혜과 채규만(1999)이 표준화하고 유소영(2000)과 이유진(2006)이 미혼 남녀에게 적합하게 수정 및 요인분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소영(2000)은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권정혜, 채규만, 1999) 중 미혼 남녀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진 7개 하위 척도 93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그 후 이유진(2006)은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 및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에서는 수검자가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일치도(Chronbach's α)는 전체 .90, 남자 .85, 여자 .92 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설문지 (Consensual Unwanted Sex Scale)

본 연구에서는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지로 Impett와 Peplau(2002)가 제작하고, 유외숙과 박경(2004)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질문 내용은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혹은 피로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파트너의 성적 요구에 별로 응하고 싶지 않았을 경우에 파트너의 요구가 있을 때 당신은 어느 정도 응했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중인 연인이 연구 참여 대상인 점을 감안해, 원래 척도에서 현재 파트너가 없는 경우 과거 파트너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에서 응낙한 정도를 7점 Likert척도로 '전혀 응하지 않았다(0점)'에서 '언제나 응했다(6점)'로 답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애무가 광범위한 친밀한 접촉을 의미하여 직접적인 성행동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외한 구강성교와 삽입성교 문항만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내적일치도(Chronbach's α)가 전체 .88, 남성 .85 여성 .85로 나타났다.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와 AMOS 20.0을 사용하였다. 각 척도별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간의 평균 및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을 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사용했으며 변인들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인간의 경로모형과 APIM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점수와 집단 간 평균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애착요소에서 애착회피는 남성과 여성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불안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t=-3.23, p<.01$), 관계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2, p<.05$).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현황

성별에 따른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경험 유무와 응낙 정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남성 62명 중 23명(37.1%), 여성 62명 중 39명

표 1. 주요변인의 남녀 평균 및 집단 비교

	남(<i>n</i> =62)	여(<i>n</i> =62)	
애착회피	47.61(<i>SD</i> =13.02)	47.37(<i>SD</i> =17.11)	<i>t</i> =.09
애착불안	61.48(<i>SD</i> =16.90)	71.11(<i>SD</i> =16.25)	<i>t</i> =-3.23**
관계만족도	30.00(<i>SD</i> =6.25)	27.32(<i>SD</i> =8.36)	<i>t</i> =2.02*

p*<.05, *p*<.01

표 2.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경험 유무와 응낙 정도

		남(<i>n</i> =62)	여(<i>n</i> =62)	
CUS	유	23 (37.1%)	39 (62.9%)	62 (50.0%)
	무	39 (62.9%)	23 (37.1%)	62 (50.0%)
CUS 응낙 정도		8.39 (23명, <i>SD</i> =2.95)	5.08 (39명, <i>SD</i> =3.12)	<i>t</i> =4.12**

주. CUS=Consensual Unwanted Sex(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경험)

p*<.05, *p*<.01

(62.9%)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남성 *n*=23, 여성 *n*=39) 응낙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응낙 수준이란 원하지 않는 성행동(구강성교, 삽입성교)에 얼마큼 응했는지를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한 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응낙행동 자체는 더 많이 하지만, 응낙행동을 한 남성의 경우 응낙정도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

남녀에 따른 주요변인들 간 상관을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애착회피와 관계만족도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나(*r*=-.54,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남성)

	1	2	3	4
1. 애착회피	1			
2. 애착불안	-.21	1		
3. 관계만족도	-.54**	-.04	1	
4. CUS 응낙정도	-.06	-.02	-.16	1

주. CUS=Consensual Unwanted Sex(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경험)

p*<.05, *p*<.01

표 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여성)

	1	2	3	4
1. 애착회피	1			
2. 애착불안	-.07	1		
3. 관계만족도	-.34**	-.38**	1	
4. CUS 응낙정도	-.11	.31*	-.25*	1

주. CUS=Consensual Unwanted Sex

* $p < .05$, ** $p < .01$

$p < .01$), 애착불안과 관계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남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정도도 애착 및 관계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모두 관계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애착회피, $r = -.34, p < .01$; 애착불안, $r = -.38, p < .01$).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정도는 애착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 = .31, p < .05$), 관계만족도와는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r = -.25, p < .05$).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

연인의 관계만족도 불일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인인 남녀의 관계만족도 편차의 제

곱값을 활용하였다. 이 값을 활용해 애착 및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정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와 애착, 응낙정도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와 응낙정도 간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r = .28, p < .05$).

비록 여성의 경우,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와 응낙정도 간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을 지라도, 이 때 관계만족도 차이는 남녀 간 관계만족도 편차의 제곱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향성을 갖는 값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정도를 상하 집단으로 나눈 후 이들의 관계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표 5. 애착,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의 상관

남성	관계만족도 차이	여성	관계만족도 차이
CUS 응낙정도	-.16	CUS 응낙정도	.28*
애착회피	.01	애착회피	.22
애착불안	.05	애착불안	.17

주. CUS=Consensual Unwanted Sex(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경험)

관계만족도 차이는 남녀 간 관계만족도 편차의 제곱값을 의미함

* $p < .05$, ** $p < .01$

결과,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많이 하는 여성의 관계만족도는 24.45($SD=8.84$)이고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적게 하는 여성의 관계만족도는 27.79($SD=9.24$)로서,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적게 하는 여성들의 관계만족도가 더 높았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많이 하는 남성의 관계만족도는 29.75($SD=5.33$)이고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적게 하는 남성의 관계만족도는 29.71($SD=8.15$)로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관계만족도 차이의 경로모형

개인의 애착과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이 관계만족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해 NFI (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들을 사용했으며, 이들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CFI, TLI, 그리고 RMSEA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동시에 모형의 간명성을 평가해주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값들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FI, CFI가 모두 .90 이상이며 RMSEA도 .00으로 본 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애착과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이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경로 모형은 그림 1에, 그리고 경로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여성의

표 6.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p	NFI	CFI	RMSEA
가설모형	2.098	4	.718	.939	1.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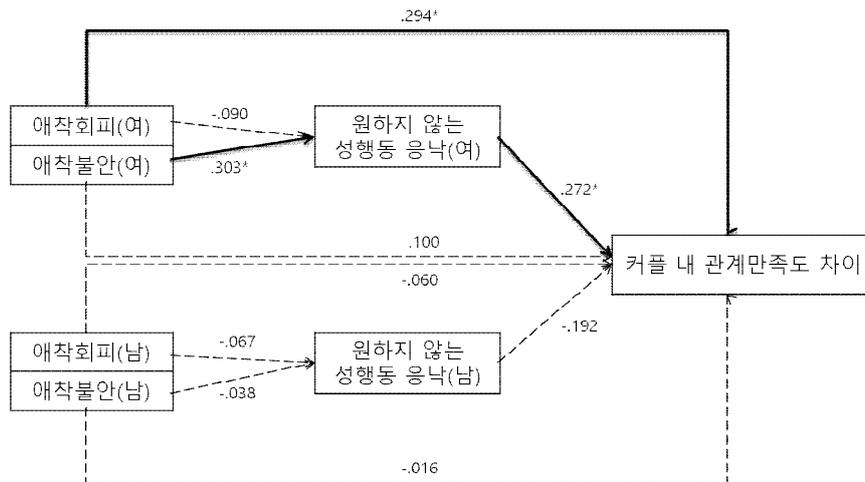


그림 1. 경로모형

표 7. 경로에 대한 표준화 계수

		B	β	S.E	P
여성의 애착회피	→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018	-.090	.025	.458
여성의 애착불안	→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065	.303	.026	.013
남성의 애착회피	→ 남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023	-.067	.045	.611
남성의 애착불안	→ 남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010	-.038	.034	.770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	8.926	.272	3.966	.024
남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	-4.939	-.192	2.946	.094
여성의 회피애착	→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	1.968	.294	.825	.017
여성의 불안애착	→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	.701	.100	.852	.411
남성의 회피애착	→ 연인 내의 관계만족도 차이	-.531	-.060	1.069	.620
남성의 불안애착	→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	-.109	-.016	.842	.897

애착불안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행동에 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반면($\beta=.303, p<.05$), 여성의 애착회피는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모두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를 증가시키는 직접효과를 나타냈지만($\beta=.272, p<.05$)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여성의 애착불안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통해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에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여성의 애착회피는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에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beta=.458, p<.05$).

상기한 결과를 바탕으로 애착과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이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이 증가하며,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연인 내 관계만족도 격차를 증

가시킨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의 상관을 고려해보았을 때,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하더라도 사실상 남성 파트너의 관계만족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반면, 본인의 관계만족도는 감소시켜 관계만족도 간 격차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개인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이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에 대한 자기-상대방 효과를 살펴보았다.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APIM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NFI=.905, CFI=.999, RMSEA=.010$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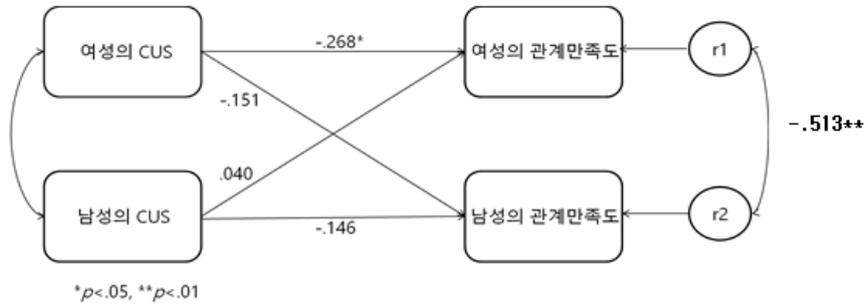


그림 2.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주. CUS=Consensual Unwanted Sex(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경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가 유의하였다 ($\beta = -.268, p < .05$). 즉, 여성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관계만족도가 낮아졌다. 반면에 남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남성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개인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이 상대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상대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애착을 바탕으로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이 이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으며, 이 변인들이 연인 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모델과 APIM 모델을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즉,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많이 할수록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는 증가하였다. 또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은 자신의 관계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자기 효과를 나타내지만, 상대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하는 것은 남성의 관계만족도를 증가시키지 않는 동시에 오히려 본인의 관계만족도만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연인 사이에 균등한 성적 교환이 이루어질 때 사랑, 관계만족, 헌신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Rusbult, 1983; Sprecher, 1998, 2002) 그리고 이성관계에서 자신이 헌신한 만큼 파트너에게서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 관계에서 지각하는 불균형은 커지며 이는 자신의 관계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Morgan, Johnson, & Sigler, 2006; Sprecher, 1998)을 재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만약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할수록 연인의 성적 관계는 불균등해지고 결과적으로 연인 내 관계만족도의 격차가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여성의 애착불안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통해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인 여성은 회피 애착인 여성에 비해 이성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보여주듯이, 애착불안이 높은 여성은 성적인 행동이나 성적인 만족을 관계만족의 지표로 생각하고 성행동을 사랑이나 돌봄과 같은 관계적인 측면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Birnbaum, Reis, Mikulincer, Gillath, & Orpaz, 2006). 특히 애착불안이 높은 여성은 파트너와 긍정적이거나 만족스러운 성적 상호작용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불안과 역기능적인 행동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며, 부정적이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경우에는 이를 파트너의 거절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어 불안감과 유기공포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Davis, Shaver, & Vernon, 2004). 본 연구 결과는 애착불안이 높은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한 경우에는 이성 파트너와의 관계만족도 편차가 더 증가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 결과는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상대 파트너를 만족시키고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응낙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선택은 파트너의 관계만족도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자신의 관계만족도만 낮출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자기희생적인 측면은 관계의 지속성을 증진시키고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 내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Van Lange, Rusbult, Drigotas, Arriaga, Witcher, & Cox, 1997). 하지만 연인 내에서 성적인 측면에서의 희생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기능적이지 않으며 관계만족감을 증진시키는 데도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주체적이고 안전한 성’에 관한 심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불안애착을 보이는 여성의 경우, 성행동 자체를 사랑과 돌봄으로 혼동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러한 특성은 불안애착인 여성이 이성과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관계를 맺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안애착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행동 관련 심리교육 과정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진단 내리고 미래의 위험에 심리적으로 대비하는 훈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본 연구 결과는 우리가 남성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Impett & Peplau, 2002, 2003; O'Sullivan & Allgeir, 1998).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단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의 응낙 수준과 응낙 동기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공소연, 2006; 유외숙, 박경, 2004). 본 연구에서도 응낙 경험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지만 응낙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의 문제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남성의 경우 여성과는 달리,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이 관계만족도를 낮추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을 지라도, 향후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을 보이는 남성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에는 고학력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 홍보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며, 대부분 연구 신청자가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이성교제와 관련해서 불안감이나 갈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이 모두 자기보고식 검사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으로 민감한 영역일 수 있어 실제 현상과 차이가 나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일반인의 경우 스스로 성행동을 원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Peterson & Muehlenhard, 2007).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 이외에도 면담이나 추가적인 심리검사도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설문지는 서구문화권에서 제작된 검사를 유외숙과 박경(2004)이 번안한 것으로서 아직까지는 신뢰도와 타당화에 대한 검증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횡단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 애착,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 및 관계만족도 간 관계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횡단적인 형태의 자료 수집 방법은 인과적인 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탐색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연인의 관계만족도 편차를 평가하는

방식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관계만족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를 계산하였다. 하지만 관계만족도 점수 상에서 남성의 9점과 여성의 9점은 서로 상이한 의미를 갖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같은 값이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면 그 편차값의 의미를 추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향후 연인 내 관계만족도 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와 절차가 개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9). 임상: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 유소영 (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 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외숙, 박 경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대학생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93-812.
- 이유진 (2006). 대학생의 부모애착, 부모 간 상호작용과 이성관계 만족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윤경, 이기학 (2005). 포스터발표: 성행동 및 성태도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

- 집, 2005(단일호), 478-479.
- 한국여성민우회 (2012). 데이트, 짜릿함과 난감함 사이-20대 성적의사소통 경험과 인식에 관한 조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1-54.
- 헌법재판소 (1990). 헌재결 1990.9.10. 89헌마82
- 홍대식 (1998). 사회 및 성격: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Aron, A., & Aron, E. N. (1986). *Love as the expansion of self: Understanding attrac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Hemisphere.
- Baier, J. L., Rosenzweig, M. G., & Whipple, E. G. (1991). Patterns of sexual behavior, coercion, and victimiz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2, 310-322.
- Bay-Cheng, L. Y., & Eliseo-Arras, R. K. (2008). The making of unwanted sex: Gendered and neoliberal norms in college women's unwanted sexual experiences. *Journal of Sex Research*, 45, 386-397.
- Birnbaum, G. E., & Reis, H. T., Mikulincer, M., Gillath, O., & Orpaz, A. (2006). When sex is more than just sex: attachment orientations, sexual experience,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929-94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 664-678.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Bukowski, W. M., Sippola, L. K., & Newcomb, A. F. (2000). Variations in patterns of attraction of same-and other-sex peers during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6, 147-154.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ssidy, J., & Shaver, P. R. (Eds.). (1999).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 Cate, R. M., Levin, L. A., & Richmond, L. S. (2002). Premarital relationship stability: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 261-284.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101-109.
- Davis, D., Shaver, P. R., & Vernon, M. L. (2004).

- Attachment style and subjective motivations for sex.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1076-1090.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545-560.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1, 1-171.
- Erickson, P. I., & Rapkin, A. J. (1991). Unwanted sexual experience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319-325.
- Feeney, J. A., Kelly, L., Gallois, C., Peterson, C., & Terry, D. J. (1999). Attachment Style, Assertive Communication, and Safer Sex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1964-1983.
- Florian, V., Mikulincer, M., & Hirschberger, G. (2002). The anxiety-buffering function of close relationships: evidence that relationship commitment acts as a terror management mechan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527-542.
- Fraley, R. C., & Shaver, P. R.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32-154.
- Gavey, N. (2013). *Just sex?: The cultural scaffolding of rape*. New York: Routledge.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B. Kim & P. Daniel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151-178). England: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Impett, E. A., & Peplau, L. A. (2002). Why some women consent to unwanted sex with a dating partner: Insights from attachment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360-370.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Journal of Sex Research*, 40, 87-100.
- Kalichman, S. C., Sarwer, D. B., Johnson, J. R., Ali, S. A., Early, J., & Tuten, J. T. (1994). Sexually coercive behavior and love styl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Psychology & Human Sexuality*, 6, 93-106.
- Katz, J., & Tirone, V. (2009). Women's sexual compliance with male dating partners: Associations with investment in ideal womanhood and romantic well-being. *Sex Roles*, 60, 347-356.
- Kelle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ew York: Wiley.
- Kenny, D. A. (1996). Models of inter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 279-294.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
- Krahé, B., Scheinberger-Olwig, R., & Kolpin, S.

- (2000). Ambiguous communication of sexual intentions as a risk marker of sexual aggression. *Sex Roles, 42*, 313-337.
- Livingston, J. A., Testa, M., & VanZile-Tamsen, C. (2007).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xual victimization and sexual assertiveness. *Violence Against Women, 13*, 298-313
- Main, M.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attachment organization: Recent studies, changing methodologies, and the concept of conditional strategies. *Human Development, 33*, 48-61.
- Markman, H. J. (1981). Prediction of marital distress: a 5-year follow-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760-762.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Morgan, E., & Johnson, I., & Sigler, R. (2006).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s for women's participation in unwanted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515-522.
- Murray, S. L., Holmes, J. G., & Griffin, D. W. (2000). Self-esteem and the quest for felt security: how perceived regard regulates attachment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478.
- O'Sullivan, L. F., & Allgeier, E. R. (1998). Feigning sexual desire: Consenting to unwanted sexual activity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Research, 35*, 234-243.
- O'Sullivan, L. F., Hoffman, S., Harrison, A., & Dolezal, C. (2006). Men, multiple sexual partners, and young adults' sexual relationships: understanding the role of gender in the study of risk. *Journal of Urban Health, 83*, 695-708.
- Peterson, Z. D., & Muehlenhard, C. L. (2007). Conceptualizing the "wantedness" of women's consensual and nonconsensual sexual experiences: Implications for how women label their experiences with rape. *Journal of Sex Research, 44*, 72-88.
- Rusbult, C. E.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117.
- Shaver, P. R., Hazan, C., & Bradshaw, D. (1988). The integration of three behavioral systems. In R. J. Sternberg, M. L. Barnes. *The psychology of love* (68-9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 133-161.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precher, S. (1998). Social exchange theories and sexuali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 32-43.
- Sprecher, S. (2002). Sexual satisfaction in premarital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satisfaction, love, commitment, and stability. *Journal of Sex Research, 39*, 190-196.
- Tracy, J. L., Shaver, P. R., Albino, A. W., &

- Cooper, M. L. (2003). Attachment styles and adolescent sexuality. In P. Florsheim(Ed.). *Adolescent romance and sexual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137-159).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alker, S. J. (1997). When “no” becomes “yes”: Why girls and women consent to unwanted sex.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6, 157-166.
- Van Lange, P. A., Rusbult, C. E., Drigotas, S. M., Arriaga, X. B., Witcher, B. S., & Cox, C. L. (1997). Willingness to sacrifice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373-1395.
- 1차원고접수 : 2014. 07. 21.
심사통과접수 : 2014. 09. 16.
최종원고접수 : 2014. 09. 26.

Effects of consensual unwanted sex and attachment on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Ji In Ahn

Young Gun Ko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consensual unwanted sex and attachment on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A survey was conducted on 69 adult couples (138 persons) who are aged 20 and over and currently in a relationship, and the data from 62 couples (62 men, 62 women) who completed the self-report scales was utilized. The subjects were asked to answer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Scales (ECRS), the Scale of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and the Consensual Unwanted Sex Scale.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women's consensual unwanted sex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ir relationship satisfaction. Second, women are more likely to consent to unwanted sex as their attachment anxiety increases. Third, women's consensual unwanted sex has a direc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and their attachment anxiety has an indirect influence on satisfaction through the consent of unwanted sex. Fourth, women's consensual unwanted sex shows a significant effect on women's relationship satisfaction whereas it does not exhibit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their partner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consensual unwanted sex, adult attachment, attachment-related avoidance, attachment-related anxiety, satisfaction with romantic relationship, APIM